

## 고양·김포·파주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전문)

지난 10여 년,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온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음에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양·김포·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를 요청한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해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폭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경기도를 적극 지지하고, 경기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를 이뤄 내기를 기대한다.

고양시장 김포시장 파주시장



지난 2월 3일 오전 8시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고양시장, 김포시장, 파주시장이 함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 27개 한강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
-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일산대교는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사업 주체인 경기도에 이양되고, 시민들은 무료로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서명기간: 2021. 2. 19~2021. 12. 31
  - 서명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 > 시민소통 > 온라인 서명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 고양소식

별책부록

- 02 고양이가 확 바뀐다**  
활짝 열린 광역 교통망, 자족도시 대전환 청신호
- 04 고양 미래를 준비한다**  
고양을 살리는 미래예산
- 06 앞서가는 조례 제정 시행**  
고양시 조례 지자체에 모범이 되다
- 08 고양 이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필요합니다

※ 세부노선 및 위치는 향후 기본계획, 설계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고양에서 강남까지 20분**



# 고양이 **확** 바뀐다!

## 활짝 열린 광역 교통망, 자족도시 대전환 청신호

- GTX-A 등 신(新) 철도망 구축·교외선 등 노선 연장
- 상습정체구간 정체 해소, 고양누리버스·친환경전기차 보급

고양시 교통지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타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까지 20여 분에 주파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4개 노선 환승으로 고양과 서울을 촘촘히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은 일산역까지 연장된다.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교외선도 운행을 재개하고 경의중앙선도 더 많이, 더 자주 운행될 예정이다. 고양~은평 간 철도가 건설되고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신교통수단(트램)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해결하고 교통 소외지역은 고양누리버스 운영으로 교통 복지도 함께 챙긴다.

## 신(新) 철도망 구축하다, 사통팔달 뻗어가는 교통망 확보



### 고양시 철도교통망 구축 계획

신설 계획 노선
- GTX-A(운정~삼성)
- 서해선(대곡~소사)
- 고양선(고양시청~새절)
- 신교통수단(대곡~시청/시청~식사)

연장 계획 노선
- 인천2호선(일산 연장)
- 교외선 운행재개(노선 변경)
- 서해선(일산역 연장)

※ 세부노선 및 위치는 향후 기본계획, 설계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산에서 강남까지 20분



일산 킨텍스에서 대곡과 창릉을 거쳐 강남까지 20여 분에 주파하는 GTX-A 노선이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창릉역이 신설됐다. 현재 관내 13개소의 수직구 굴착을 완료하고 본선 구간 터널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

### 서해선 일산~소사 구간 서울지하철과 연계

수도권 전철 서해선 고양시 기존 구간(대곡~소사)이 지난해 6월, 경의선 선로를 이용해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와 국가 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부광역철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선 일산~소사 구간 사이에 김포공항역 등 4개 환승역이 있어 서울 지하철 3·5·7·9호선과 연계된다. 202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 한강 하저터널 구간과 김포공항 환승통로 구간 등 공사 지연이 예상된다. 시는 관내 구간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 교외선 재개 등 촘촘한 철도망 구축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교외선은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교외선 운영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또한,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교외선 노선의 고양동·관산동 경유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덕양구 삼송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부천 원종에서 덕은지구를 경유해 흥대입구까지 계획된 원종~흥대선 신설, 인천 2호선 연장, 일산선 연장, 서울~고양~파주를 잇는 통일로선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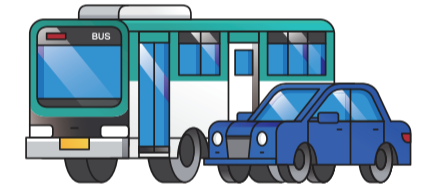
### 고양선 신설과 신교통수단 도입 예정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6호선 은평구 새절역에서 3호선 화정역을 경유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고양선이 신설되고 대곡~고양시청~식사 간 신교통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의선도 증차돼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중교통부문에는 ▲중앙로~통일로 간 BRT 신설 ▲대중교통운영지원 및 차고지신설비용 지원, 도로부문은 ▲일산~서우릉간 연결도로 신설 및 서우릉로 부분 확장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 ▲수색교 확장 ▲강변북로 서울시 구간 확장 ▲제2자유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화전역~BRT정류장 연계 도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도 개통돼 고양에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으로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

##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고양누리버스·친환경전기차 보급



### 상습정체구간 해소 노력

시는 관내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나서고 있다. 고양C, 일산C 등 나들목 병목현상부터 통일로~식사교차로 일원·고봉동 일원 등 19개 구간의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특히 출퇴근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중앙로가 합류하는 일산C 진출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 하부도로 1개 차로를 신설해 기형적 구조를 바꿔 병목현상을 완화했다. 교통 정체로 유명한 통일로의 경우, 고골입구 삼거리·아래내유사거리·두포동 입구 등 5개 교차로에 좌회전 포켓 차로와 버스 베이 등을 신설했다.



### 고양누리버스·친환경전기차 보급



고양시에는 특별한 버스, 누리버스가 있다. N001~N007의 번호판을 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송포동, 고봉동, 내유동 등 6개 노선을 구석구석 누빈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류장 신설해 누리버스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을 1,500대 이상 보급하고, 친환경 전기 충전 인프라를 2022년까지 90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 고양을 살리는 미래예산

대형개발, 도시재생... 산적한 과제 속에 고양시는 차곡차곡 미래예산을 저축했다.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와 소모적인 사업에 지출되던 예산을 아껴, 민선 7기 출범 1년 반 만에 무려 약 4천억 원을 적립한 고양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축해 온 고양시 미래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 잠자던 고양이가 깨어난다!

## 대형개발 살리는 저축 1,362억



### 1 일산 테크노밸리

VR·AR 첨단 콘텐츠 사업과 IT융합의료기술 등 신산업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4차 혁명의 메카로 부상할 일산 테크노밸리. 2021년 하반기 착공을 앞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새로이 저축한 762억 원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 2 킨텍스 제3전시장

고양시 미래예산 중 250억 원은 전 세계 MICE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전시장으로 도약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 9월, 건립의 초석을 놓게 될 킨텍스 제3전시장은 4조 6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 4천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다고 전해져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3 철도사업

고양시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 1순위, 바로 교통! 그중 서울·수도권을 잇는 교통망 확충의 중심에 철도가 있다. GTX-A 창릉역 추가 신설, 고양선 신설, 서해선 일산~소사선 연장 확정 등 각종 철도사업을 위한 분담금 350억 원이 차곡차곡 적립되어 사통팔달 고양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 녹색도시 고양으로 한걸음

## 숲 살리는 저축 511억



### 1 공유임야사업

도시 개발과 정비를 위해 도심 속 허파가 되어 줄 많은 공원들이 점차 자취를 감춰가는 가운데, 고양시는 공원일몰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공원' 7곳을 정비하고 되살려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색공간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고양시의 깨끗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미래예산으로는 511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 새 옷 입은 고양을 만나보세요! 도심 살리는 저축 1,893억



### 1 도시재생사업

시는 전국 최다 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612억 원을 신규 적립했다. 드론앵커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화전, 구 능곡역 리모델링으로 토당 문화플랫폼을 조성한 능곡,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삼송, 일산북 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재도약하는 일산,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원당. 새 옷 입고 꽃단장할 구도심의 재탄생이 기다려진다.

### 2 도시주거환경 정비

1기 신도시가 들어선 지 어엿 40년,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281억 원을 미래예산으로 저축해 일시에 부담이 찾아오지 않도록 했다. 민선 6기 저축액의 15배에 달하는 이 예산으로 고양시는 노후시설 교체와 같은 주택정비와 시설 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 3 신청사 건립

108만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될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이 새로이 확보됐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건립될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공공청사는 장차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고양시의 100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이제 고양에서 일합시다!

## 일자리와 기업 살리는 저축 207억



### 1 일자리기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공공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 마련된 일자리기금이 무려 100억 원. 고양-희망 내일 일자리 사업, 고양 맞춤형 일자리 학교운영 등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고양시는 고군분투 중!



### 2 중소기업육성

탄탄한 중소기업육성이 자족도시 고양시를 만든다! 고양시는 새롭게 저축해둔 27억 원의 미래예산을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히 사용할 계획이다. 그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이자차액보전 사업 등에도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세심히 살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예정이다!



### 3 남북교류협력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준비된 미래예산 80억 원은 고양평화의료클러스터 추진, 고양-개성 관광 등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중책사업은 물론 평화통일사업과 대북 인도적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의 놀라운 비상이 시작된다.

# 고양시 조례 지자체에 모범이 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고양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보호 받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 7가지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시행 2020. 5. 29. 부서 예산담당관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현 상황의 해소를 위해 지난해 5월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가 제정됐다.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조례를 통해 산하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 임금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0. 8. 11. 부서 주택과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한 조항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경비원에 대한 인권·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0. 12. 24. 부서 일자리정책과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일용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은 질병·부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상실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입원치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은 1일 81,120원, 연간 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8. 11. 시행 2021. 1. 1. 부서 여성가족과

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모의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일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씩 9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2021. 1. 5. 부서 토지정보과

고양시는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를 하거나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성실납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포인트는 고양시 지역화폐로 전환해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1. 1. 15. 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사고 또한 급증했다. 그에 따라 배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및 휴식환경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배달사업체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1. 2. 5. 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대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